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인간이 집짓기를 시작한 이래로 그들의 희망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집짓기를 원했을 것이다. 동물이나 곤충까지도 건축적 본능이 있는데 인간은 건축과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신에 도전이라도 하듯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열망을 끊임없이 드러내곤 했다.

종교건축은 한없이 웅장하고 높아지려고 하였고, 군주들은 사후(死後)공간을 구축함에 있어서 수십만 명이 동원되는 장대한 묘제건축을 건립하였다. 시간이 흘러 산업화가 진행되자 도시공간이 집적화되고 확장되면서 교통, 주거, 환경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도시화 추세는 50%에 이르고, 점차 20년 후가 되면 약 75%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 이전에도 인류는 현실세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세계를 원하였다. 무어는 이상도시 왕국 건설을 통해 당시 영국의 사회경

근대유산과 인문학을 통한 도시재생

제적 병폐와 종교적 자유 및 개방화 되어가는 유토피 경제체제에 대한 경제적, 공주시회적 유토피어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의 유토피학적 도시구조와 운영원리는 자족성, 도농통합, 인구통제, 건물 내부에서의 공동체 생활, 토지이용 분리 등이며 이러한 상당수 논지는 근대 도시계획으로 계승되었다.

19세기 말 영국인 하위드는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에 전원과 도시의 성격은 동시에 지니는 자족적인 도시 건설이 황폐화된 도시를 개선하는 유일한 대안이라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서 건축가 라이트는 브로드웨이 시티라는 이상도시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극단적인 저밀도 도시로 특징적인 것은 교통체계다. 거주자 모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헬기형태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입체화된 여러 층의 도로로 구성되어 철도, 화물수송차, 고속교통수단인 모노레일 등이 층별로 이용된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적인 제안이다.

중심지가 없는 도시에서 학교와 그 주변은 공동체센터가 된다. 주변에는 화랑, 공연장, 강연장, 작은 공원이 마련되어 있다. 에너지는 전기, 석유, 가스인데 공동구에 의해 공급받는다.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 기능의 수목 띠도 있다. 이 모든 물리적인 계획은 지방분권적 행정조직 내에서 건축가가 계획하고 관장한다.

이처럼 혁신적인 사상가와 건축가들의 주

장과는 달리 도시공간을 통해 유토피어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르네상스 이래로 수백년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열망과 도시 성장이 같기 때문이다. 즉 산업화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한 현대 도시들은 일정한 공간 안에 사람과 건물을 비롯한 엄청난 재화를 탐욕적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도시는 도시 외곽부로 확장되었고 기존의 전통적 도시환경은 공동화되고, 변모되어 정체성을 잃고 말았다. 도시는 장구한 세월 동안 건물과 길, 식생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생성되고 변해가는 공간이다. 도시의 품격은 사람과 공간, 전통과 일상문화가 어울려 결정된다. 더욱이 장소와 역사에 대한 애정과 인식이 이어져야 할 때 도시는 기쁨을 더해가는 것이다.

지난 4월 국토부는 앞으로의 도시개발은 신도시, 혁신도시 등 역대 정부에서 펼쳤던 새로운 단지조성 정책을 지양하고 기존도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의미 있는 정책으로 여겨진다.

그간 지방도시의 성장구조를 보면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도시는 공간적으로 확장되어 당연히 인프라가 좋은 신도시 쪽으로 인구가 집중되기 마련이다. 상대적으로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도시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시대의 역사유적을 활용한 구도심의 활성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실효성이 입증된 사례가 많다. 즉 전통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시켜 주변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최

근에는 근대건축이나 유적도 그 몫을 크게 하고 있다.

인천과 군산, 목포 등은 일제강점기의 항구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도 철도청 옛 관사를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가 진행 중이다. 통영의 동피랑은 벽화마을 명소가 되었다. 붉은 벽돌조 근대건축 이외에도 소금창고와 골목길, 교도소 등 경향각지에 그뿐이라. 한편 유럽은 지금 문화예술로 도시를 재생 중에 있다. 철도역사를 재생시킨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이나 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바꾼 영국의 테이트모던미술관을 언급하는 것은 이전 벌써 한물간 얘기이다.

근자의 화두는 인문학이다. 인문학으로 현실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인문학에 노력하고,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다. 공간의 이용주체인 사람들이 공간에 대한 가치를 고민하고 판단하게 하는 생각의 틀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된다.

광주의 '푸른길을 살리자'는 공동체에서는 폐기자 안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 있다. 몇마디 강의로 여겨 인문학을 이해하리요 만든 인간을 배제시킨 건축과 도시공간에서 인간중심으로 합의와 접점을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의 생성원리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조성되어온 도시의 양적 성장에 대한 반성과 정체성 모색이 결국 인문학에서 찾아야 할 해법인 것이다.

社說

기아차 노조 언제까지 '귀족' 오명 들을 텐가

기아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21일 4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조만간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파업 일정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지만 파업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아차는 이날 생산 차질이 15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주공장도 하루 2000여 대의 생산량 가운데 5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1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외에 장기적으로 65세까지 확대하는 정년 연장과 사내 하청의 정규직화,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해외판매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파업에 따라 생산은 물론이고, 최근 노사간에 돌파구를 마련한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와 봉고차

증산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3000억 원을 들여 증산시설을 갖추고도 5개월째 설비를 놓고 있다는 건 기아차도 문제지만 그에 맞춰 시설투자를 한 협력업체와 영업점의 고통 또한 이면지만이라는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의 요구안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으나 상당수 무리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도 그렇고,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조8647억 원 가운데 1조 1594억 원을 달라는 게 가당한 일인가.

노조는 오늘의 기아차가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노조는 사실상에서 사측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파업을 강행한다면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

녹조현장에서 4대강사업 옹호한 새누리당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등지에서 심각한 녹조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지만, 여당 의원들의 인식이 너무 동떨어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환경문제가 불거지면 방제와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는 여당의 책무는 뒷전인 채 4대강사업 옹호에만 매달렸더니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유례없는 녹조로 물살을 앓고 있는 영산강 현장을 찾은 안효태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은 "녹조는 30여년 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자연재해로 봐야 하지만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며 "4대강사업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나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물론 녹조는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현상이다. 그러나 영산강에 보(泐)를 설치한 이후 유독 심해져 주민들의 걱정이 커진 상황에서 여당의 책임있는 의원이 할 말인지 되묻고 싶다.

다른 위원들도 "4대강사업이 녹조의 원인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동

조했다는 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녹조에 대해 방안 제시는 미루고, 4대강사업 편들기에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여당원들의 현장 점검은 '생색내기'이자 왜 찾았는지도 의문이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즉각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 이후 강물이 흐르지 못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녹조의 피해가 왜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4대강사업과 녹조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철만 되면 광주·전남을 섬기겠다고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이번 영산강 녹조사태에서 보듯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가 터지면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는 적인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헤아려볼 일이다. 새누리당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진정할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만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

평화음악제에 초대합니다

고 광주에서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마다 그곳의 아티스트들과 공연을 함께하고, 이 공연을 응원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같이 이동하는, 그리하여 피리에 피리를 문차량행렬이 분단된 한반도를 육로로 넘고 전세계를 돌지러 달리는 광경을 생각하면 없던 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는 광주정신이 면면히 흐를 것입니다. 1980년 5월 항쟁기간에 보여주었던 광주시민의 대동정신이 역사상 인류가 이루어낸 가장 아름다운 평화와 정의, 저항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또 방향을 잃고 헤매는 21세기 지구촌의 등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가 공연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헌법 9조를 개정하려 하고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기술하여 향후 대한 해협에서 위기가 고조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남과 북은 일단 터지면 국지전 좁은 각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는 미워함에 있어 이유가 없는, 그래서 더욱 수치스러운 지역감정으로 막말을 해대고 갈수록 커지는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신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또한 자연을 마음껏 파괴한 결과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대재앙 등, 이와 같은 것들과 우리 모두는 무관한 것인가요. 앞서 말한 공연을 꿈꾸는 이유입니다.

2007년에 중국 쪽이 아닌 북한 쪽 백두산 천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지연에서 출발할 때 땀 방울씩 내리던 비가 맑았다 흐트러진 반복하더니 천지에 도착하였을 때는 거친 비바람과 찬기는 구름 때문에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같이 올라왔던 400여 명이 천지와 공연 보는 것을 포기하고 비바람을 피해 올라왔던 차 안으로 들어가 내려가자고 하였습니 다.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던 저는 북측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장군봉을 향해 달

렸습니다. 그리고 장군봉에 서서 한 치 앞을 보여 주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천지를 향해 '직녀에게'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절을 마쳤는데 놀랍게도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천지가 막이 열리듯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는 중국 쪽 그 넓은 만주벌판까지도 환하게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저의 노래가 천지의 구름을 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모아 이제 다 같이 노래하자고 권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노래, 음악, 그래서 특별한 힘이 있는 노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음악, 그 음악과 노래만이 구원하는 평화의 군대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제1회 광주 평화 음악제에 초대합니다. 8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까지 매일 계속되는 평화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기고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제안

속도감 있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밝히고 지역민의 뜻(含意)을 이끌어 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 중단된 빛고을문화관을 리모델링 된 전일빌딩에 두자는 안이다. 문화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조심스럽게 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현재는 광주시 산하의 도시공사가 전일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존치로 인해 소요될 전일빌딩의 리모델링 예산에 이미 결정된바 있는 빛고을 문화관 건립 예산을 보태면 시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예술의 본산인 문화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인접한 전당의 브랜드 가치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거리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구축한 충장축제의 실질적인 민간 추진위원회와 자료보존의 목적을 겸한 상설전시관도 전일빌딩 내에 구축한다면 전당 개관과 연계한 거리축제의 융복합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금남로 및 전일빌딩과 관련한 5·18 기록전시관 및 체험관을 5·18 민중항쟁 당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던 전일빌딩 내의 장소에 설치하고, 1층과 2층을 터서 실내공원과 작은 공연장을 만든다면 전당과 연계한 도심 커뮤니티 광장으로서 전일빌딩의 가치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동구 구도심의 주차문제이다. 전문가들은 문화전당이 개관하면 연간 36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하루 평균 약 1만 명의 관광객이 동구를 찾게 되는데, 지금도 심각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문광부와 광주시는 옛 광주주요 부지에 주차타워를 세워 차량 1080대를 주차시키고, 문화전당 내 지하 주차장(500대 주차가능)까지 이용하여 승용차 1500대는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연간 관광객 360만 명 유치 전망이 틀리지 않다면 하루 외래 관광객의 약 15% 정도만을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로는 현재도 거의 짝 처치는 동구의 비좁은 도로와 골목길을 모두 주차장으로 내줘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길은 문화전당 인근의 서석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초·중·고를 활용하는 것이다. 넓은 운동장들을 구비하고 있는 이들 학

교의 운동장에 지하 2층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개방한다면 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주차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당과 인접한 곳은 지하도를 만들어 전당까지 연결해도 좋을 것이다.

학교 운동장 등의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은 프랑스에서는 진즉부터, 일본에서는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 타 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제는 광주시도 관공서나 공원 및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토지의 입체적인 활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주민자치 시대에 살고 있다. 지역민들이 주인으로 나서서 지역의 담론(談論)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원하여 대선 주자들이 모두 약속했던 기초단위선거 정당공천배제가 현실화되려는 이 순간, 많은 주민의 의견을 물어 감히 제언해 본다.



백화포럼 공동대표

2015년 개관을 목표로 동구에 건립되고 있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은 동구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문화수도 광주의 핵심 프로젝트다. 비록 애초 개관 시기는 늦었지만, 전당 건립만을 바라보며 10여 년을 버려온 동구의 현실에 비추어, 앞으로라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여론은 따라서 매우 절박하다.

이에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과 동구 및 광주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동구 금남로 1번지인 전일빌딩의 보존과 활용 문제다.

기존에 광주시는 건물 전체를 철거 그 자리에 녹지와 지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존치 방침을 밝혔다. 그렇지만, 전일빌딩의 운명을 좌우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구성은 여전히 미정이다. 전일빌딩을 존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無 等 鼓**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평균 결혼비용은 여성이 2883만3000원이었지만 남성은 9588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결혼 당사자들이 마련하는 금액을 빼면 아들을 장가보낼 땐 5144만9000원, 딸을 시집 보낼 땐 1432만6000원을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신랑 부모가 신부 부모보다 3배나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얘기가.

남성의 결혼비용이 많은 이유는 신혼집을 신랑이 준비하는 관행이 퍼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신랑 측에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을 조사한 결과 '신혼주택 비용'이 75.0%로 가장 높았다. 반면 신부 측은 결혼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을 '신혼살림'이라고 답한 비율이 41.6%로 가장 많았다.

봉건시대에는 딸이 총명하고 영리하면 부모가 도리어 걱정을 했다. 여성은 과거조차 볼 수 없었던 시대다. 조선시대부터 유교를 숭상했던 까닭에 딸은 기피하고,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호

호 풍조 속에서 남자들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아들을 낳아 후대를 잇는다는 관념이 서서히 열어 지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여권이 신장되면서 자연스레 여아선호를 부추기고 있다. 모 여성채널 스 토리온의 설문조사에서 딸 선호도가 41%로 아들 선호도 19%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딸 시집 보내면 집 기둥뿌리가 뻗으면 부모가 도리어 걱정을 했다. 여성은 과거조차 볼 수 없었던 시대다. 조선시대부터 유교를 숭상했던 까닭에 딸은 기피하고,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호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결혼비용**

